

# 2016년 상반기 북한산업 동향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 I. 머리말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분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대북 경제제재 등 악화된 대외경제 관계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에 따른 단기적인 노동력 투입의 증가 및 생산활동의 증가라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양호한 기상상황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 감소는 주요 수출부문인 광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지만, 수입 감소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2016년 상반기에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노동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는 있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생산활동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상반기에는 이 효과가 대외무역 감소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아직 그 영향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2015년 하반기 이후 강수량이 예년 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2014년과 2015년 상반기까지 농업 및 수력발전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가뭄이라는 기상요인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 등 2016년의 속도전은 대규모 신규 설비의 건설을 통한 생산능력 확충이나 전력, 철강 등 전략적인 품목의 생산목표 달성 등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주로 각 생산단위 생산계획의 조기 수행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상반기 계획을 70일 전투 기간 중에 조기 완수한다거나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조기 완수목표에는 생산목표뿐만 아니라 각 공장·기업소가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하던 개보수나 신제품 개발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즉,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의 목표는 어느 정도 개별 공장·기업

소의 역량과 자체 계획을 반영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전면적인 top-down 방식이 어느 정도 지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야심적인 양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김정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목표달성에 대한 성과보도가 크게 늘어났다. 『노동신문』은 70일 전투에 대해 목표가 44% 초과달성 되었으며, 공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0% 늘어났으며,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대상이 준공, 조업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또한 6월부터 시작된 200일 전투 첫달 동안 공업 총생산 계획이 20% 초과 수행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sup>2)</sup>

대부분의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1,600여 개의 기업에서 70일 전투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선전되었다. 다만, 전력과 함께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금속소재를 생산하는 핵심 설비인 김책제철소의 생산성과 보도가 거의 없다는 점, 석탄화학공업 부문의 성과보도가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는 점, 경공업 부문에서는 식품가공부문보다 섬유·의류의 성과보도가 상대적으로 많다든가 하는 것들이 눈에 띄이는데, 이는 성과보도가 어느 정도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기존 설비의 개보수와 함께 새로운 제품, 공정, 기술의 도입에 관한 성과보도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속도전이라는 특성에도 기인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인 국산화 정책 및 과학기술 중시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부문에서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3호기, 평양려명거리, 대규모 물길공사, 각급 보육 및 교육 시설, 체육시설, 일부 새로운 생산설비 건설 등 활발하게 생산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전년 같은 기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II. 2016년 상반기 북한산업 및 실물동향

### 1. 전력 및 광업

#### 가. 전력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70일 전투 및 6월부터 시작된 200일 전투의 영향, 그리고 가뭄의

1) 『노동신문』, 2016. 5. 6.  
2) 『노동신문』, 2016. 7. 4.

해소 등으로 전력부문 생산은 전년에 비해 적지 않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초부터 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와 수풍발전소 등 수력발전소의 생산성과가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보도는 70일 전투가 시작된 3월부터 크게 늘었다. 노동신문은 전력부문에서 70일 전투 목표를 10% 초과수행하였으며, 200일 전투 첫달 생산계획을 20% 초과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 등 속도전이 추진되면 성과보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난해 전력부문에 대해서 『노동신문』이 거의 침묵을 지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생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화력발전의 경우 북창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등에서 70일 전투 기간 동안 전력 생산계획을 11% 초과달성하였다고 하며, 특히 북창화력발전소는 70일 전투 기간 동안 매일 평균 백수십 만kWh의 전력을 증산하였으며, 순천과 청천강 화력발전소는 각각 1,750만kWh와 1,635만kWh의 전력을 증산하였다고 한다.<sup>4)</sup> 석탄공급의 증가와 함께 발전소의 개보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이후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 제재에 따라 수출용 무연탄이 화력발전소에 공급되어 발전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sup>5)</sup>

수력발전부문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심한 가뭄으로 인한 수량부족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sup>6)</sup>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전력 생산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10월경부터 소수의 성과가 보도되던 전년대와 달리 연초부터 많은 수력발전소의 발전성과가 다수 보도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증산 수치나 목표 초과달성 정도가 보도된 화력발전부문과 달리 70일 전투의 구체적인 성과가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월 초순까지는 수력발전부문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월의 성과도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다.

투자 측면에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가 완공, 조업하였으며, 홍주청년 3호발전소 등 일부 중소형 발전소도 완공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송배전망의 현대화와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전년에 이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관련하여 북한은 평성자동화기구공장, 새날전기공장,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연구소 등에서 10kW, 100kW 풍력발전기를 자체 제작하였다고 하며, 태양광발전기의 자체 생산능력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태양광을 전원으로 하는

3) 『노동신문』, 2016. 5. 6; 2016. 7. 4.

4) 『노동신문』, 2016. 5. 4; 2016. 5. 6.

5) 2016년 1~5월 기간 동안 무연탄의 대중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4월과 5월은 물량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줄어든 수출 물량이 내수로 돌려졌을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영 화력발전소에 공급할 때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이 책정될 수 있거나 하는 점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한 매체는 5월 이후 북한의 전력사정이 개선되었는데, 이는 수출용 무연탄이 내수용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지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6) 2015년 하반기부터 강수량이 늘어나서 2015년 전체로는 평균 강수량이 예년 수준을 넘어섰다. 2016년에도 평년 수준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 중인 데, 5월의 경우 평균 강수량은 148mm로 평년 대비 92%가 증가하였다.

7) 『노동신문』, 2016. 5. 14.

유람선 건조 성과도 보도되었다.<sup>8)</sup>

## 나. 광업

여타 산업과 달리 광업은 수출의 비중이 큰 업종이다. 따라서 전년도에 이은 수출 감소, 그리고 4월 이후 중국의 공식적인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통제 등이 어떤 형태로든 광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16년 1~5월 동안 북한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약 12% 감소하였다.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의 대중 수출은 3억 8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하였다. 이러한 대중 수출의 감소는 수출단가의 하락에 의한 것인데, 같은 기간 수출 물량은 860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4% 증가하였다. 철광석의 경우 금액과 물량 측면에서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이 대북 경제제재 품목으로 지정되었지만 석탄의 예에서 보듯이 아직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4월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이 전년보다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으로도 크게 줄어들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수용 생산의 경우에는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의 영향 등으로 생산활동이 전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70일 전투 기간 동안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목표보다 10만톤의 석탄을 증산하고, 덕천, 구장, 북창, 득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석탄 생산을 10%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였으며, 6월에는 목표보다 40% 많은 석탄을 생산하였다고 보도하였다.<sup>9)</sup> 다만, 최근 2년간 석탄 증산에 대해서는 증산 규모가 수치로 제시되었는데, 2016년에는 개별 광산연합기업소에서 산발적으로 증산 규모가 수치로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석탄공업성 전체로는 증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증산 규모가 실제로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철광석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채, 무산광업연합기업소와 재령광산을 중심으로 생산성과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8) 『노동신문』, 2016. 5. 15.

9) 『노동신문』, 2016. 5. 6; 2016. 7. 4.

## 2. 제조업

### 가.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 부문에서는 기계(수송기계 포함), 중전기, 화학 공업 등에서 성과가 두드러지며, 금속부문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에 이어 기계 및 전기 부문의 성과보도의 비중이 크다. 기계공업성은 3월 경제계획을 107% 초과 수행하였으며,<sup>10)</sup> 70일 전투 기간 중 대안중기계연합기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금성트랙토르연합기업소 등에서 공작기계 생산계획을 60% 초과달성하는 등 수력발전기와 터빈, 공작기계, 자동차, 트랙터, 굴착기, 압축기와 전동기, 감속기, 변압기 등을 계획보다 평균 50%, 최고 100% 초과달성하였다고 한다.<sup>11)</sup> 6월에는 채취기계부문이 월 생산목표를 70% 초과수행하는 등 기계공업 전반이 생산계획을 20% 초과달성하였다고 한다.<sup>12)</sup> 또한 금성트랙토르공장 등에서 농업부문에 공급할 트랙터 부속품 공급계획을 조기에 완수하는 등 각 산업부문에 공급하는 기계부품의 공급도 증가하였다. 이는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에 따른 전반적인 생산활동 증가와 함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 수력발전소 건설, 농기계 및 어선 등 농수산부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산 설비 및 자재에 의한 개보수 및 현대화 추진 등 주요 경제정책 기조가 기계공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1~5월간 중국으로부터의 기계류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 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제품의 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13.4% 줄어들었지만, 일반 기계류의 수입은 오히려 6.1% 증가하였다. 수송기계 중 철도 관련 제품의 수입은 소폭 늘었으며, 철도 이외 제품의 수입은 소폭 감소하였다. 기계류의 수입 감소는 북한 기계공업 전반, 나아가 북한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화되었다고 볼 근거는 많지 않다. 특히 일반 기계류 수입이 3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각급 기계공장에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와 청진빠스공장에서는 각각 5톤 신형 화물차와 버스를 개발하였으며, 금성트랙토르공장에서는 50마력 신형 트랙터를 개발하였다고

10) 『중앙통신』, 2016. 4. 3.

11) 『노동신문』, 2016. 5. 3; 2016. 5. 6.

12) 『노동신문』, 2016. 7. 4.

한다. 령남배수리공장에서 5,000톤급 화물선과 태양광전지 유람선을 건조하였으며, 구성공장 기계공장에서는 신형 CNC내면연마반과 외면연마반을 개발·생산하였고,<sup>13)</sup> 대안전기공장은 100kW와 10kW 풍력발전기를 개발·생산하였고 한다. 아울러 감자수확기, 자행식분무기, 종합밭갈이기계, 종합토양관리기계, 소형다기능농기계, 벼종합탈곡기 등 20여 종 70여 대의 농기계들이 개발·제작되었다고 한다.<sup>14)</sup>

화학공업도 다소 성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0일 전투 기간 중 남흥청년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생산계획이 20% 초과달성된 것으로 보도되는 등 석탄가스화 공정에서의 비료 생산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비날론과 기초화학제품의 생산도 증가하였다고 보도되었다.<sup>16)</sup> 6월에는 비료와 비날론, 염화비닐 등을 중심으로 화학공업의 생산계획이 30% 초과수행되었다고 한다. 투자동향에 대한 보도는 많지 않은데, 주요 투자동향 보도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새로운 기계제염공정을 건설하였다는 보도 정도이다. 한편, 플라스틱, 비료 등 화학제품의 대중 수입은 북한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적어도 2016년 상반기에는 대외무역이 화학 원부자재의 공급 감소와 그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양새이다.

금속공업은 지난해 준공·조업한 황해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를 통한 선철 생산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공업 전반으로는 여타 산업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황해제철소가 70일 전투 기간 동안 선철 및 압연강재 생산계획을 각각 29%와 11% 초과수행하고, 전리마제강소와 산하 보산제철소에서도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다고 한다. 반면,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생산성과는 70일 전투 기간 내내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6월에는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 없이 황해제철소와 김책제철소에서 성과가 있었다고만 보도되었다. 이러한 성과보도는 공업 전반의 구체적인 목표달성 수치와 핵심 설비의 성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된 기계공업이나 화학공업의 성과보도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2016년 상반기 금속부문에서 성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1~5월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철강재의 수입이 15% 가량 증가하고, 수출은 45% 정도 줄어들었다. 수출 감소는 대북 경제제재 및 중국 측 수요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는데, 수입이 증가한 것은 국내 수요 증가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핵심설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황해제철소에서

13) 『노동신문』, 2016. 5. 12.

14) 『노동신문』, 2016. 5. 14.

15)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가스화 비료생산 공정과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요소비료 생산공정은 조업 이래 최고의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보도 되기도 하였다. (『노동신문』, 2016. 4. 18; 2016. 4. 27).

16) 4월 19일 현재 70일 전투 비날론 생산목표를 50% 초과달성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노동신문』, 2016. 4. 21).

산소열법용광로 현대화 공사와 함께 무연탄 가스발생로와 고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한 압연가열로가 완공되었으며, 중량레루완성직장의 레루수평교정기 설치, 후판압연가열로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 선탄공정 확립 공사 등 10여 개의 새로운 공정 건설 및 현대화 공사가 완료되었다.<sup>17)</sup> 김책제철소에서는 대형 무연탄알탄 생산기지가 완공되었으며, 천리마제강소에서는 산소분리기 설치와 고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한 내화물 생산기지 건설이 추진되었다.<sup>18)</sup> 시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공업은 늘어난 건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 및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나. 경공업

경공업은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신문』은 70일 전투 기간 중 경공업 부문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이 54% 초과수행되었으며, 방직, 편직, 신발공업 부문에서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60% 증가하였고, 잠업비단공업국의 생산은 2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방직실, 일반천, 뜨개옷 등은 물적 생산실적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200일 전투 첫달인 6월에는 일반천, 뜨개옷, 양말 등을 중심으로 경공업 총 생산액 계획이 20% 초과달성되었다고 한다.

2016년 1~5월 기간 동안 대중 섬유류의 무역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수입이 감소하였던 섬유 원자재(HS 54, 55)의 수입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의류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 대외무역은 섬유·의류 부문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년과 달리 식품가공부문은 성과보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6월에 평양곡산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을 중심으로 식료일용공업성 기업들이 계획을 30% 초과달성하였다는 보도가 대표적인 성과보도였다.

설비투자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들레학습장공장, 류경김치공장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공업 공장들이 완공·조업하였다.

17) 『노동신문』, 2016. 5. 25.

18) 『노동신문』, 2016. 5. 3.

## 다. 건설 및 국토관리

건설부문은 전년에 이어 활발하게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 70일 전투의 핵심 과제인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완공되었으며, 원산군민발전소 및 홍주청년3호 발전소 등이 완공되었다. 지난해의 미래과학자거리와 유사한 성격의 려명거리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함흥과학자 살림집 건설 1단계가 완공되었다. 함흥, 해산 육아원, 유아원이 완공되는 등 전국에서 보육시설 건설공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평양중등학교 등 각지의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동물원 2단계 개선공사가 진행 중이며, 평양시의 100여 개 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지의 650개 체육시설이 개보수 및 현대화되었다. 또한 600여 km의 강하천을 정리하고, 200여 정보의 호안림을 조성하였으며, 10여 만 정보의 산에 수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백수십km의 도로를 개보수하며, 수십 개의 다리를 건설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아울러 청천강-평남관개 자연흐름식 수로공사가 새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루벌물길공사, 황해남도물길공사 등 대규모 수로공사와 능금도, 용매도 간석지 공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 추진과정에서의 설비 개보수 및 현대화 등 기업 투자를 수반한 건설공사도 상반기에는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당창건기념일 이벤트를 위하여 대규모 건설공사가 다수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건설활동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III. 2016년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의 성과는 대외경제 관계의 악화와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라는 속도전을 통한 자원의 집중 투입이라는 상반된 요인이 작용하였다. 전년과 달리 기상조건은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았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나 대북 경제제재 등 대외경제 관계의 악화에 따른 영향은 무연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의 수출 감소라는 형태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석탄광업을 비롯한 광업 부문의 실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2016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수출 감소가 설비 및 원부자재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북한산업 전반의 생산활동을 저하시키는 작용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계류의 수입이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감소 폭은 전년과 유사하며, 오히려 일반 기계류는



수입이 증가하였다. 철강재는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화학 원부자재도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섬유류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였다. 따라서 아직까지 대북 경제제재가 광업을 제외하고는 북한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가운데, 단기적으로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속도전인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의 영향으로 2016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산업생산 활동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70일 전투의 계획이 44% 초과달성되고, 기간 중 공업 생산액이 전년에 비해 60% 성장하였으며, 200일 전투 첫달인 6월에는 공업생산 계획이 20% 초과 달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신문』의 신뢰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노동력과 자원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하는 속도전이 해당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증산효과를 거두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때, 상반기 중 북한산업 및 실물부분은 전반적으로 생산활동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 내부에서는 전력, 기계, 석탄광업, 화학, 섬유·의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컸을 것으로 추정되며, 금속공업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가뭄에 따른 수량부족으로 수력발전소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사정이 악화되었던 발전부문이 2016년 상반기에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대북 경제제재의 지속에 따른 대외경제 관계의 악화와 노동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200일 전투에 따른 단기적인 생산활동의 증가라는 서로 상반된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상반기에는 산업생산 활동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대북 경제제재가 현재의 강도로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에도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제제재에 따라 산업생산 활동이 갑작스럽게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대외 의존도가 이미 상당히 높은 북한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며, 점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의 70일 전투에 이은 200일 전투의 지속으로 북한은 3월부터 거의 연말까지 속도전을 추진하는 셈이 될 것이다. 속도전이 단기간에 그친다면 자원배분 효율성의 희생을 통하여 단기간에 생산활동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장기간 동안 지속되면 생산활동 자극 효과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후유증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만,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가 각 생산단위의 기존 계획의 수행 기간을 앞당기는 형태의 목표를 주로 설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하반기 북한산업의 성과는 대북 경제제재의 지속 속에 이미 추진 중인 200일 전투가 얼마나 자원의 낭비를 줄이면서 생산활동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2016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북한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